

육계 육추관리의 5가지 기준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육계산업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병아리 생산비용이 수당 550원 이상이 되었다. 이런 현실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중 하나가 병아리 한 마리 한 마리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이고, 한 마리의 병아리라도 소홀할 수 없는 개체개념이 생겼다는 것이다.

육계의 특성상 대군 밀집사육을 하다 보니 소나 돼지처럼 한 마리의 개체개념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지만 이제는 개체관리에도 신경써야 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된다.

육계의 사육일령이 단축되어 29일령에 1.6kg 이상 출하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정도로 육계사육의 증체속도도 매우 빨라졌다. 따라서 육추기간 동안의 사육 상태에 따라 출하성적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유재석 대표
(주계흥)

로 필자의 원고방향도 육추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번 2월호에서는 농장마다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육추방법이 같을 수는 없지만 육추관리에서의 5가지 기준은 어느 농장이나 동일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 기준을 알아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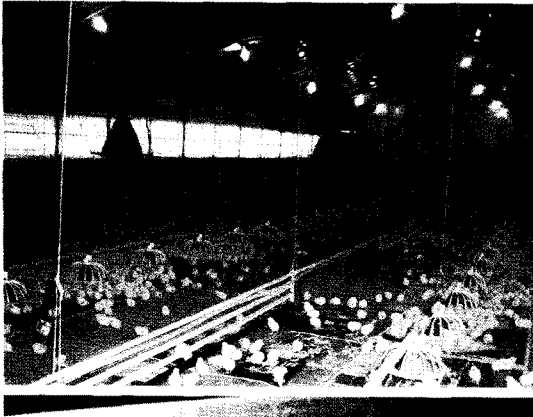
1. 병아리를 교육시키려 하지 말자

육계 병아리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관리자들은 병아리를 교육시키려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병아리가 사료를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병아리가 어렵게 와서 먹도록 하는 경우이다.

병아리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4일령 이후)야 와서 먹을 수 있겠지만 육추기간에는 어느 곳에서도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육추준비를 해야 한다.

급수관리 역시 마찬가지다. 넝플을 설치했다고 보조물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보조물통 유무에 따라 균일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 어떤 관리자는 보조물통을 두면 넝플에 적응하는 기간이 늦어지므로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병아리는 얼마나





빠른 시간에 물을 충분히 먹느냐가 중요하지 적응하는 시간이 중요하진 않다. 육추기간에는 어디서든 쉽게 물을 신속히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줘야 한다.

육추실 온도도 어느 지점에서 측정을 해도 적정온도에서 3℃ 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열원(가스육추기나 열풍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고 육추실 단열이 충분해야 한다. 높이가 낮고 기온차이가 많은 육추실에서 병아리가 적응하길 바라는 것은 관리자의 잘못이다.

육추실 온도는 상대습도가 20% 이하라면 37℃를 유지해줘야 하고, 육추실 적정 상대

습도인 65% 이상의 경우 32~33℃ 정도면 병아리가 35℃ 정도로 느끼기 때문에 충분히 골고루 퍼진다.

육추기간동안의 4일령까지는 병아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다. 따라서 관리자는 모든 것을 병아리 입장에 초점을 맞춰 관리해줘야 정상적인 사양관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에도 병아리에 대한 적응 교육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추기간 동안에 병아리를 교육시키려 한다면 정상적인 닭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2. 병아리의 지능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우리가 가금류의 지능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닭의 지능은 16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100이 넘는 인간의 생각으로 병아리 입장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가 쉬운 말로 '병아리 입장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능의 차이로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육계사육을 해야 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닭이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지능이 16이라면 본능적인 행동이지 이성적인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배고프면 사료를 먹고 목마르면 물을 먹는다. 온도가 높으면 입을 벌리고 온도가 낮으면 물려 있다.

가까운 곳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면 멀리 찾아가서 먹지 않고 차라리 안 먹는 쪽

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 물통이 높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물을 먹지 않는다. 육추실 온도가 낮다면 불을 피울 생각을 못하고 겨우 체온유지를 위하여 병아리들끼리 몰려 있는 것이 전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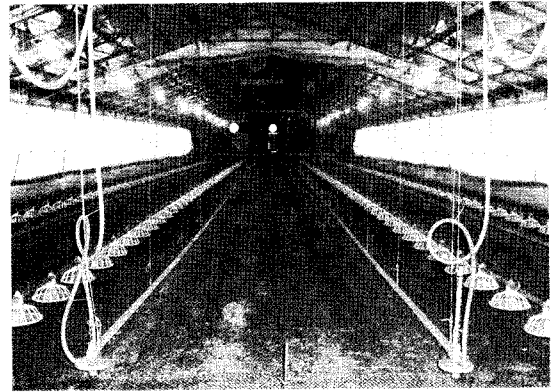
이렇듯 거의 본능적인 행동만 할 수 있는 육추기간의 병아리를 관리자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육추실을 꾸밀 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병아리의 입장에서 준비해야 육계 육추관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 관리자는 닭의 지능을 100 정도로 생각하고 육추실을 꾸미지만 실제 16 내외정도이기 때문에 결코 지능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고 관리에 임해야 한다.

육추준비를 대략 해놓고 ‘병아리가 알아서 적응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능이 높은 관리자만의 일방적인 바램임을 강조하고 싶다.

3. 입추당일 점검리스트를 작성하여 확인하자

육계사육에서 성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육추기간이라고 앞에서 강조했



데 육추기간 중에서도 병아리가 농장에 입식되는 당일의 육추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관리자는 입추 당일에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여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한다. 입추 당일에 공통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목록으로 확인해보자.

병아리가 입추되는 당일 날은 점검할 사항들이 참 많다. 이런 것을 점검하는 이유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고 최대한 완벽한 육추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입추전날까지 모든 육추 준비가 끝나야만 입추 당일 점검이 가능하다. 상호 농장과 부화장과의 다툼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

〈표 1〉 입추 당일 부화장과 점검해야 할 사항

점검내용	기준	비고	확인
종계산란주령수	초산/피크/노계	육추실 준비에 참조	입추전날 확인/담당자
입추수수	농장요청수수	동별 입식수수 결정	당일 날 출발 시 기사 확인
부화장 출발시간	수송거리	하차인원 확보	수송기사와 통화
농장위치	약도 참조	수송시간 단축	수송기사와 유선통화
병아리 계종	회사공급계종	계종별 차별화된 관리	수송기사 / 담당자

(표 2) 입추 당일 농장도착 시 점검할 사항(동절기)

점검 내역	기준	비고	확인
병아리 도착시간	최대한 빠른 시간	소요시간 계산	수송기사와 확인
병아리 상태확인	활력/깃털윤기/배꼽	농장도착부터 사육시작	수송기사와 확인
입추수수	요청수수	동별로 적정수수 배분	수송기사에 통보
하차인원 확보	5,000수에 1명이상	최대한 충분히 확보	수송기사와 확인
육추실 온도(도착 전)	25~28℃ 내외	사전 예열	수송기사와 확인
육추실 온도(육추 후)	32~34℃ 내외	상대습도 65% 이상 시	수송기사와 확인
하차시간	최대한 신속히	-	수송기사와 확인
암모니아가스	10ppm 이하	적정온도(33℃) 후 측정	수송기사와 확인
병아리 중량	33g~48g	10수씩 10회 측정	수송기사와 확인
덤 수 확인	103수	5박스 이상	수송기사와 확인
병아리 균일도	동일계군	병아리 개체중량	수송기사와 확인
급이	거리 1m이하 간격	기준+보조 사료통	수송기사와 확인
급수	거리 1m이하 간격	기준+보조 물통	수송기사와 확인
갈짚 상태	새 갈짚	왕겨/톱밥/기타발효	수송기사와 확인
갈짚 두께	8~12cm	계절적 요인	수송기사와 확인
열풍기 종류	가스육추기	열풍기 용량 및 종류	수송기사와 확인
육추실 밝기	최소 20룩스 이상	조도계로 야간 측정	관리자 확인
육추실 크기	130~150수/평	밀사유무	수송기사와 확인

수송기사와 위 사항들을 확인한 후 사인하고 인수증을 받는다.

태에서 농장은 병아리를 문제삼으려 하고 부화장은 농장에 원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문제요인을 사전 점검하여 이런 다툼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육추방법은 농장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을 할 수 없지만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게 준비하면 큰 다툼이 없을 것이고 역으로 농장에서 이런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군에 이상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부화장에서 우리 병아리가 이상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것이 PL법(제조물 책임법)이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 예방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위 점검 내용에서 모르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농장에서도 반드시 점검해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4. 클리닝은 확실히 영양제는 적절히

향후 부화장과 농장간의 신뢰가 충분히 회복되고 양계산업이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계에서의 백신상황이나 약품투여에 대한 자료가 실용계인 CC를 사육하는 농장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은 부화장에서 병아리만 달랑 농장에 오고 인수증만 가져가지 자세한 정보

가 없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여러 가지 관리상 어려움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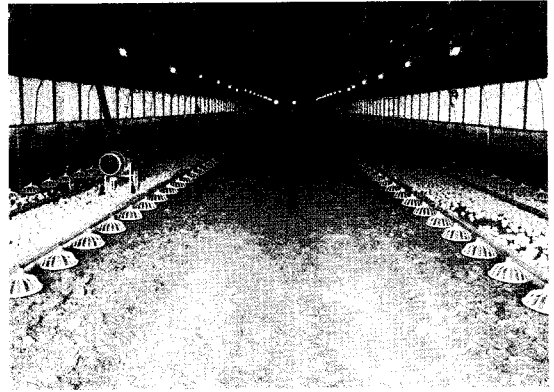
농장에서는 병아리가 아주 깨끗한 무균(SPF) 상태로 온다고 믿지를 않고 있다. 종계로부터 이어지는 난계대전염병이 충분히 감염되어 올 것으로 예상하여 병아리 때 클리닝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살모넬라(추백리, 티프스)에 감염되었거나 마이코플라스마균(CRD) 또는 봉입체성 감염, 닭 전염성 빈혈 등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질병들이다.

이런 연유로 클리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수준의 약을 투여해야 하는지 종계로부터 받은 내성문제가 있어 때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장에서 클리닝을 할 경우에는 싼 약만 고집하지 말고 인근 수의사와 상의해서 제대로 된 약제를 선택하여 실시하기를 권장한다.

영양제 역시 약 가격에 신경 쓰지 말고 비타민 종류와 함유량을 잘 확인하고 수의사의 안내를 받아 제대로 된 용량을 투여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육추기간에는 약품투여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투여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예방 투여를 권장하는 것이다.

육계는 분명 약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닭 스스로가 최대한의 유전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인위적으로 환경만 만들어주는 것이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환경개선에 중점을 뒀다 함을 강조하고 싶다.



5. 기본을 알고 이에 충실하자

생산지수(PI) 30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농장 관리자의 특징을 보면 그들만의 특별한 관리방법이 있겠지만 그 비결을 물어보면 잘 설명해주지 않는다. 특별한 게 없다는 것이다. 굳이 있다면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육계사육에서 기본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육추 당일 점검사항에 점검요소들을 나열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각 계종별로 가장 이상적인 사육기준들이 있다. 결국 관리자는 병아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들을 최대한 능력 발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 뿐이지 관리자 스스로 성장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육계사육의 본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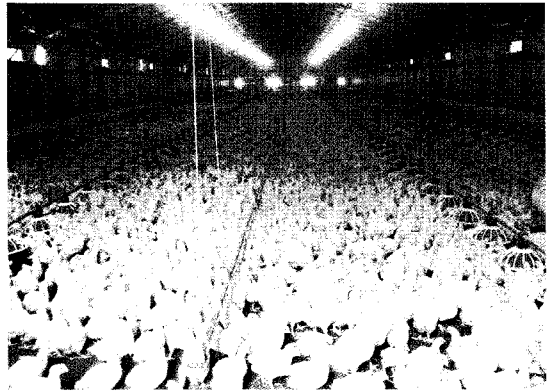
육계사육의 기본 중 육추관리의 사양기술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방대한 자료들이 연구되고

발표되었기에 여기서는 세부적인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육추실 사양관리의 실무 기준에 대해 글을 쓸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바램을 가져본다.

많은 자료가 있지만 우리나라 환경에 맞도록 변형된 사양기술이 필요하고 농장에서 직접 사육을 해본 결과로 증명이 되어져야 살아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번역된 자료가 아닌 우리의 현장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 글을 쓰고 싶다.

대부분 육계를 처음 사육했을 때를 돌아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성공 사육을 했을 것이다. 그 때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발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했을 것이다.

그러나 차차 경력이 쌓이면서 초심도 흐려지고 융통성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육계는 30일 전후면 출하가 되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닭은 지능이 매우 낮고 관리자를 잘 이해해 주지 않는다. 본능적으로 행동할 뿐이다. 30,000수를 사육하던 관리자가 80,000수로 규모를 늘렸기 때문에 옛날처럼 관리를 다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병아리는 절대 알지 못한다. 따라서 모든 양계 서적들이 잘 되라고 사양관리를 안내하듯이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책에서 안내한대로 기본적인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다 보면 관리자도 모르게 누구나 부러워하는 육계사업의 성공인이 되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맺음말

육계산업 중 육계 사양관리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성장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치료할 시간도 없고 치료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도 아주 미약하다.

이런 특징적인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섬세하고 계획적이며 기본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특히 육추기간의 사육 능력이 1회 사육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관리자는 앞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기준을 두고 각 농장에 맞는 사양관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양관리 방법은 모두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목표는 하나이므로 육계 병아리를 통해 닭으로 변하는 중심에 관리자의 기술력과 열정이 함께 한다면 육계사업은 반드시 성공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으리라 필자는 확신한다. 🐔